우리에게 근대의 법과 제도는 어떻게 이식되었는가?

- ☞ 근대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'법치'가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경험되었는가?
- ☞ 식민통치기에 '법치'는 조선인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?
- 。 근대국가의 조건
 - 근대사회의 경제·법 공동체. 법에 기반한 통치를 위해 중앙집권적인 기구(機構)
 - 근대국가는 부분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며, 그들의 이해(利害)를 조정하는 힘
- 。 근대국가의 힘
 - 법에 의해 보장
 - '국가이성(國家理性)의 관념'1)에 근거
 - 그러나 동시에 근대국가는 '자유'의 관념에 뿌리를 두기도 함
 - --> 양자의 모순적 요소, '법의 우월성'

1. 갑오개혁~대한제국기 사법제도의 개혁

- 。조선 시대의 법
 -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범, 즉 "형법"
 - 유교적 가치의 실현을 우선하는 유교적 법치주의
- 。 갑오개혁(1894)
 - 홍범14조, 재판과 형벌제도의 근대화
 - 지방관의 권한에 포함되어 있던 사법권 분리
 - 1895년 4월 「민형소송규정」(법부령 제3호)
 - 태형 집행시의 신분적 차별 폐지
 - 징역형 도입
- 。 대한제국기(형량의 강화, 엄벌주의)
 - 「형법대전」(1905년 5월 29일 법률 제2호), 기존 형법 체제와 조항 상당 부분 유지
 - 「보안법」, 「출판법」, 「신문지법」 등 제정
 - 군수재판 잔존

2. 식민지 조선의 사법제도

- 1907년 7월 「민형소송규칙」(법률 제13호)
- 1907년 12월 「재판소구성법」
- 1909년 통감부 재판소 설치

¹⁾ 다른 윤리적 이유에 우선하는 국가 공익상의 이유

- 1912년 3월에 「조선형사령」, 「조선태형령」 (근대적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 배제, 공판중심주의 형해화)
- 1925년「치안유지법」
 - --> 소송을 줄이기 위한 식민지형 경찰 사법

3. 식민지 조선의 재판

- 민사재판 건수 급증
- 재판은 비교적 독립적으로 운영
- 식민지 사법제도 자체의 원천적 한계